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영민-하편>>

<차례>

5. 마음과 마음을 잇는 언어의 끈

(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1쪽 (60문제)

6. 세상을 바라보는 예리한 눈

(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21쪽 (26문제)

(2) 마지막 땅 -----35쪽 (52문제)

(3) 책으로 세상 읽기 -----61쪽 (12문제)

7.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69쪽 (12문제)

(2) 내 생각에 귀 기울여 줄래요? -----76쪽 (2문제)

8. 삶 속에 흐르는 한국 문화의 강

(1) 청산별곡 -----79쪽 (49문제)

(2) 시조 세 편 -----99쪽 (35문제)

(3) 흥계월전 -----113쪽 (31문제)

9. 우리 말과 글의 역사 위에서 미래를 보다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132쪽 (61문제)

(2) 우리말의 담화 관습 다시 보기 -----148쪽 (5문제)

▶전체 정답 -----153쪽

▶해설 -----156쪽

(버전: 2020.08.04.)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사이트에서 오류 체크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5-(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1 높임 표현

• **높임법**: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

상대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며, 격식체(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해요체, 해체)로 나뉨.
주체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잡수시다, 주무시다 등)를 사용하기도 함. •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기도 함.
객체 높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모시다, 뵈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 여쭙다 등)를 통해 실현됨. •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함.

2 시간 표현

• **시간 표현**: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요소로, 국어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음.

•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뉨.

종류	기법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았- / -었-, -았었- / -었었-, -더-	• 동사: -(으)ㄴ, -던 • 형용사: -던	어제, 아까 등
현재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 동사: -는- / -ㄴ- - • 형용사: 없음.	• 동사: -는 • 형용사: -(으)ㄴ	오늘, 지금 등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겠-, -(으)리-	-(으)ㄹ	내일, 곧 등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뉨.

진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 ‘-고 있다’, ‘-어(아) 가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
완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의 완료를 나타냄. • ‘-어(아) 버리다’, ‘-어(아) 있다’, ‘-어(아) 놓다’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됨.

3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

- 는 - / -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제를 표현함. •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음. •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음.
-았- / -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시제를 표현함. • 상태가 완료되어 발화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 • 발화사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음.
- 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시제를 표현함. •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음. •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음.

4 피동 표현

-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피동 표현의 형성 방법**: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피동사를 만들거나, ‘-되다’, ‘-어지다’, ‘-게 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피동의 의미를 나타냄.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표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함. •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함. •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
--

- **피동 표현의 오용**: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표현 효과가 떨어지므로 유의해야 함.

이중 피동 표현	피동사나 ‘-어지다’, ‘-게 되다’ 등의 표현을 두 개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표현 예) 나뉘어지다(나누- + -이- + -어지다)
불필요한 피동 표현	능동 표현을 사용해야 국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번역 투의 영향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예)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5 인용 표현

-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으로, 전달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뉨.

직접 인용	인용하는 문장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라고’를 사용함.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사용함.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1. 다음 설명 중 올바르게 서술한 것을 고르면?

- 직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 표현보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격식 있는 문체가 된다.
-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겠-’은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철수가 만든 장난감을 강아지가 부수어 버렸다.’에서 ‘만든’의 ‘-ㄴ’은 현재시제를 나타내고 ‘버렸다’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있다.
-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 표현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2. 잘못된 표현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은?

-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대.
- 공무원 시험 경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 내가 상을 탔다니 믿겨지지 않아.
- 그 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었어요.
-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바탕으로 능동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탐구한 것이다. 올바르게 않은 것을 고르시오.

<보기>

김기자 :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여섯 시쯤 ○○구 ○○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①**불길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이 중 주차장 일부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불별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복과 학용품 등 신학기 물품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교복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 가량 올랐으며, 운동화는 9%, 가방은 6.5%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③**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①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②를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로 바꾸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③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 ②는 내용의 주관성을 높일 수 있고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할 수 있다.
- ③은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대전대신등학교 (대전)

4. 다음 중 동작상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상 :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 ② 진행상 : 지금쯤 고구마가 잘 익어 있겠다
- ③ 진행상 : 기차가 그때 막 들어오고 있었다
- ④ 완료상 : 영우가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완료상 : 승주는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이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나 조사가 아닌 어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주무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여쭙다)
- ㉢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체언(예 사장님)
- ㉣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체언(예 댁)

- ㉠, ㉣이 모두 쓰인 문장 : 아버님께서 아직 음식을 드신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어머니를 설득하여 치아를 교정해 드렸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동생은 사무실로 가서 그분을 직접 찾아뵈었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언니는 할아버지께 성함을 여쭙어 보았다.
- ㉢, ㉣이 모두 쓰인 문장 : 나는 부모님의 연세를 정확히 기억한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우리는 내일 프랑스 여행을 간다.
- ㉡ 그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모범생이었었다.
- ㉢ 아까 출발한 아버지께서는 벌써 집에 가셨겠구나.
- ㉣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번 농사는 다 지었다.
- ㉤ 어제 서울역 광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

- ㉠ :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ㄴ'이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 ㉡ : '-었었-'은 과거의 상황이 현재와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 : '-었-'과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겠-'이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다.
- ㉣ : '-었-'은 발화사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더-'는 과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아버지 : 지수가 책상 정리를 ㉠하고 있구나.
 지수 : 네, 바자회에 기부할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아버지 : 잘 했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구입한 책은 어디 있지?
 지수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아버지 : 그렇구나.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지수 : 네, 조금 후에 저랑 같이 바자회에 ㉤갈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 : '-ㄴ'은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대전대신고등학교 (대전)

8.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를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옷이 잘 입어지실(㉠ 이 옷을 잘 입으실) 거예요
- ② 텔레비전에 비치는(㉡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 ③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예상됩니다.)
- ④ 이것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작된) 제품입니다
- ⑤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사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컨대, ‘안다’에 접미사 ‘-기-’가 결합한 ‘안기다’는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인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 캠핑 중에 모기에게 다리를 물렸다.
 ㉡ : 엄마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 ㉠ : 야외에서 직접 경관을 보니 그림의 구도가 쉽게 잡혔다.
- ㉡ : 병이 낫자마자 아이에게 붓을 잡혔다.
- ㉠ :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 ㉡ : 누나가 동생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 책상 위의 원고들이 바람에 날렸다.
- ㉡ : 꼬마들이 옥상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 ㉠ : 친구가 새 가방을 내게 보였다.
- ㉡ : 투병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보였다.
- ㉠ : 칭얼대는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혔다.

서현고등학교 (경기)

10. <보기>의 ㉠과 ㉡에서 밑줄 친 말의 의미를 비교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일반적으로 ‘-았-/-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았-/-었-’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10년 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뻐다.
 ㉡ 발목을 다쳤더니 너는 수학여행은 다 갔다.

<조건>

- ‘㉠의 ‘-었-’은 ~을(를) 의미함’의 형식으로 쓸 것.
- ‘㉡의 ‘-았-’은 ~처럼 표현함.’의 형식으로 쓸 것.

석관고등학교 (서울)

11. 높임 표현과 상대 높임 체계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 하십시오체
- 아저씨, 강아지가 정말 귀여우세요. - 격식체
- 교장선생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 하오체
- 정연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 - 하계체
- 네, 고객님. 이 제품 정말 잘 나가세요. - 해체

석관고등학교 (서울)

12. 밑줄 친 부분에서 높임 표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 현우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 아버지께서 파전을 맛있게 드신다.
- 예지가 선생님께 수학문제를 여쭙었다.
- 승찬이가 과일을 깎아서 어머니께 드렸다.
- 경호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정류장으로 나갔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3. 밑줄 친 부분에서 시제가 다른 하나는?

-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 민기가 운동장을 달린다.
-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 내 친구가 물을 많이 마신다.
-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니?

석관고등학교 (서울)

14. 다음 시의 ㉠~㉣에 대한 설명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과 같은 시제 표현은 부사어 ‘지금, 이제’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과 ㉢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다.
- ㉣은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겠니?”와 같은 문장에 쓰인 것처럼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 ㉤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사용된 현재 시제이다.
- ㉠, ㉡, ㉣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다.

석관고등학교 (서울)

15.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 일부 체언 뒤에 ‘-지다’를 붙여 만들 수도 있다.
- 주어가 직접 행동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 ‘운전 중에 끼여들기를 하지 마라.’가 바른 표현이다.
-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제목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의 7종의 접사를 붙여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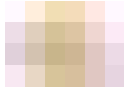
석관고등학교 (서울)

1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배송이 끝난 날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중 피동의 사용으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 교환해 주지 않는 업체 측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다.
- ‘모여지다, 쓰여지다, 믿겨지다’ 등과 같은 표현이다.
- 용언의 어간에 ‘-게 되다’를 붙여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 “다음에 들를 장소는 광화문이 되겠습니다.”와 같은 의도로 사용된 표현이다.



제지 기관

㉠

갈래	텔레비전 뉴스	성격	사실적, 객관적
제지	보령 머드 축제		
주제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제장 방문 및 보령시와 뉴질랜드 간의 수출 협약 체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영상이 함께 사용됨. •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를 직접 제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 		

㉡

갈래	기사문	성격	사실적, 객관적
제지	보령 머드 축제		
주제	보령시와 뉴질랜드의 '보령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 - 부제 - 전문 - 본문'으로 구성됨. •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 		

㉢

갈래	인쇄 광고	성격	사실적, (설득적)
제지	보령 머드 축제		
주제	'보령 머드 축제'의 날짜 및 장소 홍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함. •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함. •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미지로 표현함. • 외국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축제의 세계화 이미지를 부각함. 		



제지 구조도

표제	축제 한류를 이끄는 '보령 머드 축제'
부제	수출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전문	보령시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의 머드 축제 수출 협약 체결
본문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가는 '보령 머드 축제'

핵심 강의

1. 매체별 특성

	방송 매체		인쇄 매체	
	㉠ 텔레비전	㉡ 신문	㉢ 인쇄 광고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를 이용하며, 인쇄 매체보다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 본질적으로 일시적이어서 녹화를 하지 않으면 방송과 동시에 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문자 언어)로 내용을 전달함. 독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그림, 도표 등의 보조 자료를 사용함. 같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음성 언어보다 보존성이 뛰어나.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음.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	음성 언어, 자막, 영상 등	표제, 기사 본문, 사진 등	배경, 이미지, 광고 문구 등	

2.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과 의도 및 표현 방법

	㉠ 텔레비전	㉡ 신문	㉢ 인쇄 광고
관점과 의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보령 머드 축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령시가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머드 축제의 수출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었음을 알리고자 함.		‘보령 머드 축제’를 홍보하며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함.
표현 방법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인터뷰) 장면과 보령시와 뉴질랜드의 협약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축제장 모습과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통해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부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진을 통해 ‘보령 머드 축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뒷받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함. 사물놀이 복장을 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을 이미지로 넣어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점을 알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텔레비전 뉴스

뉴스 진행자 : 대한민국 대표 축제,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 직접 머드 체험을 즐겼습니다. 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착색된 머드를 얼굴에 바르며 신기한 듯 미소를 띠입니다. 공포의 감옥 안에서 온몸으로 머드 ㉡세례를 받으며 짜릿한 즐거움도 만끽합니다.

주한 뉴질랜드 : 대사 정말 즐겁습니다. 보시다시피 축제의 열정을 그대로 느꼈고, 특히 방학을 맞은 젊은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다 함께 즐기는 것 같아 멋졌습니다.

기자 :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내년 12월 뉴질랜드에서 열릴 로토루아 머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술과 비법을 배우러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앞서 보령시는 뉴질랜드에 내년부터 5년간 머드 원액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머드 체험 시설과 머드로 만든 제품 등이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에 수출됩니다.

보령 시장 :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뉴질랜드에 수출함으로써 세계인이 함께하는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 : 올해로 열아홉 번째를 맞은 보령 머드 축제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 케이비에스(KBS) 「뉴스 5」 (2016. 7. 22.) -

(나) 종이 신문

축제 한류 이끄는 ‘보령 머드 축제’
스페인 이어 뉴질랜드에 수출,
외국인 관광객 약 44퍼센트 늘어나

국내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해외 수출길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시와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머드 원료 등을 수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령시는 앞서 2014년부터 2년 간 세계 유명 축제인 스페인 토마토 축제장에 머드 체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머드 축제를 처음 해외에 전파했다. 뉴질랜드로의 두 번째 머드 축제 수출을 위해 보령시는 지난 달 보령 시장 등이 로토루아 시를 방문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로토루아 시는 뉴질랜드 교육부 지원을 받아 내년 12월 보령 머드 축제를 모델로 한 머드 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 직접 축제를 체험하고 보령 시장과 머드 원료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보령 머드 축제는 1996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해마다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왔다.

지난 15~24일 열린 올해 보령 머드 축제 역시 외국인 관광객 수가 43만 9,000여 명으로 지난해 30만 4,000여 명보다 44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보령시는 집계했다.

보령 시장은 “올해 열아홉 번째 열린 머드 축제는 그동안 국내외 언론의 많은 조명을 받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수출은 머드 축제가 한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유명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2016. 7. 27.) -

(다) 인터넷 기사문

외국인이 본 보령 머드 축제 “재밌지만, 대기 시간 길어” 공연·머드 체험 ‘좋아요!’, 먹을거리·관광 ‘아쉬워요~’

한국 관광 공사 대전 충남 지사는 지난 주말에 ‘주한 외국인 충청권 세계 축제 홍보단’ 40여 명과 함께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았다. 이후 ‘축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외국인 홍보 단원은 공연과 머드를 활용한 체험 행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머드 체험 구역의 시설물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에 이르러, 입장료 대비 시설 만족도는 낮았다. 이에 따라 유료 구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과 체험 행사를 추가하는 한편 머드 광장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파를 분산하기 위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주변 식당에서는 대부분 조개구이나 생선회를 내놓아 음식 선택의 폭이 좁으므로 먹을거리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연합뉴스」 (2016. 7. 30.) -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령 머드 축제의 체험 시설 규모를 알리고 있다.
- 보령 머드 축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 보령 머드 축제를 찾은 각국 대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 보령 머드 축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 보령 머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는 전달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도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 (가)에는 관계자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 (가)에는 주최 기관장의 인터뷰를 제시하여 보도에 대한 믿음의 효과가 드러난다.
- (나)에는 역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자의 의견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특징이 드러난다.
- (나)에는 수출국가가 확대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도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드러난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 : 착복(着服)
- ㉡ : 협상(協商)
- ㉢ : 일대(一帶)
- ㉣ : 선물(贈物)
- ㉤ : 역행(逆行)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사문의 제목 구실을 하는 표제가 나타나 있다.
- 기사문의 표제를 보충하는 부제가 제시되어 있다.
- 기사문의 본문을 요약한 전문(全文)이 나타나 있다.
- 기사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한 본문이 제시되어 있다.
- 기사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참고사항에 대한 해설이 나타나 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5. 윗글 (나)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와 (다)에는 기사문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가 모두 나타난다.
- (나)는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데 반해 (다)는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다.
- (나)는 대상의 장점만을 말하는데 반해 (다)는 장점과 단점, 개선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다.
- (나)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로 말하는 데 반해 (다)는 주관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다.
- (나)는 대상의 역사적인 면을 언급하는데 반해 (다)는 역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함께 말하고 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6. 윗글 (다)에서 글쓴이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추가할 수 있는 자료를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조건>

- ‘-다.’ 형태의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답안의 서술 순서는 제한 없음.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제제 기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세태적, 일상적, 비판적
배경	• 시간 - 1980년대 • 공간 - 원미동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제	땅을 둘러싼 강 노인과 원미동 사람들의 갈등		
주제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룸. •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사실감 있게 드러냄. 		

제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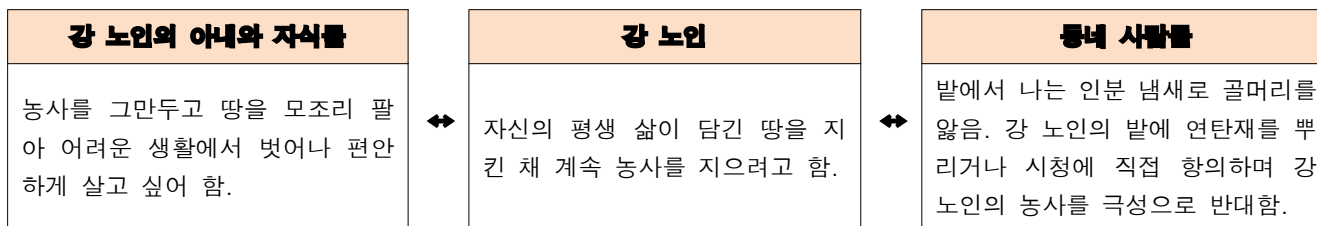
발단	원미동의 땅값이 황금값이 되었지만, 강 노인은 자신의 땅을 팔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농사를 지음.
전개	강 노인은 땅을 팔라는 주위의 회유를 무시한 채 농사를 짓고, 이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겪음.
위기	점차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된 동네 사람들은 강 노인을 압박하며 농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
결정	강 노인이 땅을 팔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동네 사람들이 몰려옴.
결말	강 노인은 땅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부동산으로 향하다가, 자신의 밭에 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림.

핵심 강의

1.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

작품의 시대적 배경 -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팔 올림픽 • (연탄재) • 도로 주변 미화 사업

2. 갈등의 양상



3. 등장인물의 특성

강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 사람들의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밭농사를 고집하는 인물임. • 평생을 억척스럽게 농사일에 매달릴 만큼 땅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함. •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함.
강 노인의 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노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강한 인물임. • 땅을 팔아 자식의 어려운 생활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
강 노인의 자식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임. • 강 노인이 땅을 팔아 자신들이 실패한 사업을 해결해 주기를 바람.
동네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노인의 밭농사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인물들임. •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로 불평을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의 집값에 대해 걱정함. • 강 노인에 대한 불만 표시의 방법으로 그의 밭에 일부러 연탄재를 버릴 만큼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지님.

4.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

동네 사람들의 모습	→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노인의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에 대한 항의로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내던짐. • 강 노인네 땅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서 동네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람. • 강 노인의 땅을 밉고 이익을 얻기 위해 강 노인의 며느리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사라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보임. • 도시화로 인해 자본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이 만연함. • 심리적 연대감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 인간관계가 맺어짐.

5.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가치

강 노인의 모습	→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 모종이 살아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동네 사람들의 행동에 분노함. •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농사일을 소중하게 여김. • 땅을 팔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지 않기로 결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을 생명의 공간,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인식함. •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 삶의 방식을 중시함. •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추구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물포 주 씨가 구둣밭로 대충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리 놓고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가 바로 강만성(姜萬成) 노인이다. 원미동 23통 일대에서는 강 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니 ㉠강 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地主)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속속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일미터 팔십을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강 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일꾼 차림새였다. 유난히 큰 코는 얼굴의 절반 이사를 차지하는 듯 싶고, 검붉은 얼굴과 어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 버금가는 빛깔이었다. 씩씩한 걸음걸이하며 노상 걸어붙인 채인 팔뚝의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는 좀체 어려웠다. 목소리도 우렁차서, 그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용문아!” 하고 소리쳐 부르면 도로를 하나 건너서 백 미터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딱 뒤로 돌아앉은 그의 이층집에 있던 막내아들 용문이 금세 튀어나오곤 했다.

<중략>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 했던 박 씨의 말본새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 것들이란. 박 씨 내외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 노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찌거나 모두 서울 끄나풀들이었다.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 나오는 두엄 냄새라면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에 본데없는 막된 것들이라니까. 강 노인은 팽개쳐 두었던 팽이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대충 털어 내고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산 같이 내다 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투성이였다.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엎어 주는 폭 삭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끄나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 둔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석부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던 것이 요 몇 해 농사 실정이었다.

㉢거기에는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겨울 동안 용문이 녀석을 시켜 밭을 지키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밤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 버리는 동네 사람을 지키고는 했지만 허사였다. 올봄에도 역시 트럭 한 대분 이상의 연탄재를 생돈 들여서 치워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층 상가 주택이 아니면 단독 연립이니 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이 동네는 한 집에 적어도 네 가구 이상은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보통이었다.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 날은 연탄내 하는 식으로 꼬박 꼬박 다니고는 있지만 그게 말그대로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름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 주는 밭 꼬라지가 밍다고 부러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지는 동네 사람들의 속셈쯤은 강 노인도 짐작하고 있었다.

<중략>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었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찌겠느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밭등의 불이라도 꺼 봅시다.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 보낸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 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 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 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복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 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 볼 엄두도 못내는 큰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이나 씹씹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욱 화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빛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변연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른는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 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다.

다음 날 아침, 강 노인은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밭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멸뽕’라 불리던 산이었다.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술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 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질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뿔뿔히 나와 잠깐 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 노인은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보니 어제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욱이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억센 곁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꽃아 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 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밭티 처럼 오그라 붙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웅기종기 모여서 땅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강 노인은 큼큼 헛기침을 해 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해도 물 한 통 쬐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 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 양귀자, 「마지막 땅」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1. 글의 서술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서술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배경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 현재형 시제를 통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과거와 현재를 빈번하게 교차하여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2. 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년에 한번,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갈 때마다 표지판이 아니면 언뜻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내게는 낯설기만 하였다.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여관이나 상가 사이에 홀로 박혀 있는 친정집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잃고 있었다. 옛집을 부수고 새로이 양옥으로 개축한 친정집 역시 여관을 지으려는 사람이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집 앞을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면서 동네는 급격히 시가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철길이 뜯기면서는 완벽하게 옛 모습이 스러져버렸다.

<중략>

일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짚뽕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고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중략>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둔 채 토요일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 양귀자, 「한계령」

- <보기>의 ‘나’에게 ‘은자’는 ‘강 노인’의 마지막 땅과 같은 존재이다.
- 위 글과 <보기>는 모두 산업화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강 노인’과 <보기>의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 <보기>와 달리 위 글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 위 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3. ‘땅’을 중심으로 ㉠, ㉡각 각각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은 ()적 가치를, ㉡는 ()적 가치를 중시한다.’의 문장 형식으로 작성할 것.
- 각각 2음절로 작성할 것.
- 맞춤법과 어법에 맞게 작성할 것.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4. ㉔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감언이설(甘言利說) ■ 대기만성(大器晚成)
- 명재경각(命在頃刻) ■ 유비무환(有備無患)
- 전전반측(輾轉反側)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5. ㉑ ~ 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 ‘서울 것들’에 대한 인물의 부정적인 심리가 반영된 표현이다.
- ㉒ : 청소차에 시간 맞추기가 번거로워서 생긴 결과물로, 동네 사람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㉓ : 마지막 남은 땅을 팔고 삶의 의지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된다.
- ㉔ : ‘멀뚱’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 ㉕ : 인물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대비하여 인물의 심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㉒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 노인이 이제 재밖에는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밭 때문이었다.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낚고 더러운 망태기에 쏟아 담은 사람이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 줄 자식은 없어서, 거재상과 이 층에 세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 노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 노인은 한사코 푸성귀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 노인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㉑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나) 겨우내 굳어 있던 땅은 팽이 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㉑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 두독을 갈아엎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 내고 겨우 맨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서울것들이란. 강 노인은 끽끔거리다 토막 난 옥설을 내뱉어 놓았다.

(다) “영감님, 유사장이 저 심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디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박 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흥덕이 뒷말을 거든다.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겨울부터 무진 애를 썼구만요. 우리사 셋방이나 얻어 주고 소개로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우.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강 노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 씨가 나섰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 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백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 모르십니까. ㉒팔팔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 썰으니 이삼천짜리 집들도 매기가 푹 끊겼다 이 말입니다.”

(라)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 했건만 박 씨의 말본새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 것들이란. 박 씨 내외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 노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끄나풀들이었다.

(마)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 나오는 두엄냄새라면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에 본데없는 막된 것들이라니까. 강 노인은 팽개쳐 두었던 팽이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대충 털어 내고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산갈이 내다 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괴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투성이였다.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엎어 주는 폭삭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끄나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 둔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석부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던 것이 요 몇 해 농사 실정이었다.

(바) 다음 날 강 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없어 주고 들어오자 밭 뒤 연립 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 새 옷에 뽕칠을 해 왔다며 따졌다. 강 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 놈들 뒷바라지나 해 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강 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 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강 노인이 억척스레 눌러 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

(사)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 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푸성귀나 갈아먹는대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 노인 밭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아) “밭에다 그 지경을 해 댄 걸 보면 오죽했겠수.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사 편치 될 그러슈.”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강 노인은 어이가 없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차례 오금을 박는다.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 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팔육인가 팔팔인가 땀에 ㊤도로 주변 미화 사업이 한창이라는데 밭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수? 팔팔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가 뭐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러디다.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줍디까? 그 전에 제 가격 받고…….”

(자)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에게 몰려왔다. 은혜 엄마까지 꼭 여덟 명이였다. 그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 쥐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사내도 끼여 있었다. 철거 보상금을 삼 부 이자로 놓아 주겠다는 고흥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 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 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었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차)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들여다

보지 않고 모른는 척하고 있는 용규 내외를 생각하면 꽤 씘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 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다.

다음 날 아침, 강 노인은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밭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 양귀자, 「마지막 땅」 -

충남여자고등학교 (대전)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주인공 강 노인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작품 속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있다.
-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작품 밖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충남여자고등학교 (대전)

7. 윗글을 영화로 촬영할 때 연출자가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 촬영 장소로 시청 건물과 밭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어.
- (다) : 강 노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박 씨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야겠어.
- (사) : 강 노인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는 집주인들을 표현해야겠어.
- (자) : 당황하는 강 노인과 화난 동네 사람들을 한 화면으로 표현해야겠어.
- (차) : 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듣는 용규 내외를 표현해야겠어.

충남여자고등학교 (대전)

8. 밑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충남여자고등학교 (대전)

9.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강 노인 :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 부동산 박씨 : 땅의 정신적 가치는 중시하지 않는다.
- 강 노인의 아내 : 전통적 가치보다 현실적 가치를 중시한다.
- 강 노인의 자식들 : 자본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를 지향한다.
- 고흥댁 :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간섭하지 않는 개인주의를 지향한다.

충남여자고등학교 (대전)

10. 밑글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북한의 남침을 걱정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 현대적 모습을 갖추어야 땅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 부모의 재산이 곧 자녀의 재산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 땅에 대한 인식이 삶의 근원에서 개발의 대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 강 노인은 서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부분 줄거리>

강 노인은 원미동 일대에서 많은 땅을 가진 지주로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지주이다.

동네 부동산 박씨 부부는 팔육, 팔팔을 앞두고 땅값이 최대한 올랐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말로, 동네 사람들은 연탄재를 밭에다 버리면서 땅팔기를 독촉하지만 강 노인은 고집을 꺾지 않는다.

어느 날 강 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엮어 주고 들어오자 밭 뒤 연립 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 새 옷에 뽕칠을 해 왔다고 따졌다. 강 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 놈들 뒷바라지나 해 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강 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 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강 노인이 억척스레 눌러 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 나갔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딸 밑에 쏟아 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

강 노인이 고추밭을 돌보던 날 동네 반장으로부터 강 노인의 농사 문제 때문에 열리는 반상회에 참석을 권유받지만 무시하고 둘째 아들에게 밭에 물심부름을 시키기로 작정한다.

“서너 번 날라라.”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에요. 내가 저 나르리다.”

뒤뜰에 파 놓은 펌프 쪽으로 걸어가다 뒤돌아보니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뚝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서울? 뭣하러?”

“제 형이 보낸답디다. 처가 돈이라도 꾸어 오라고.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 아,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려.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벌여 놓은 일인데 넘 보듯 하지 말고…….”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 않고 뒤꼍으로 가서 펌프 물을 뽑아 올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쓸 줄만 알지 벌어들일 줄은 모르는 녀석들이 간덩이만 부어서 일만 크게 벌여 놓고 뒷 감당은 모두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보자는 저 설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를 막아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뻘한 노릇이었다.

그날 저녁의 반상회에는 강 노인도 그의 아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놈의 뚱 타령을 왜 내가 뒤집어쓴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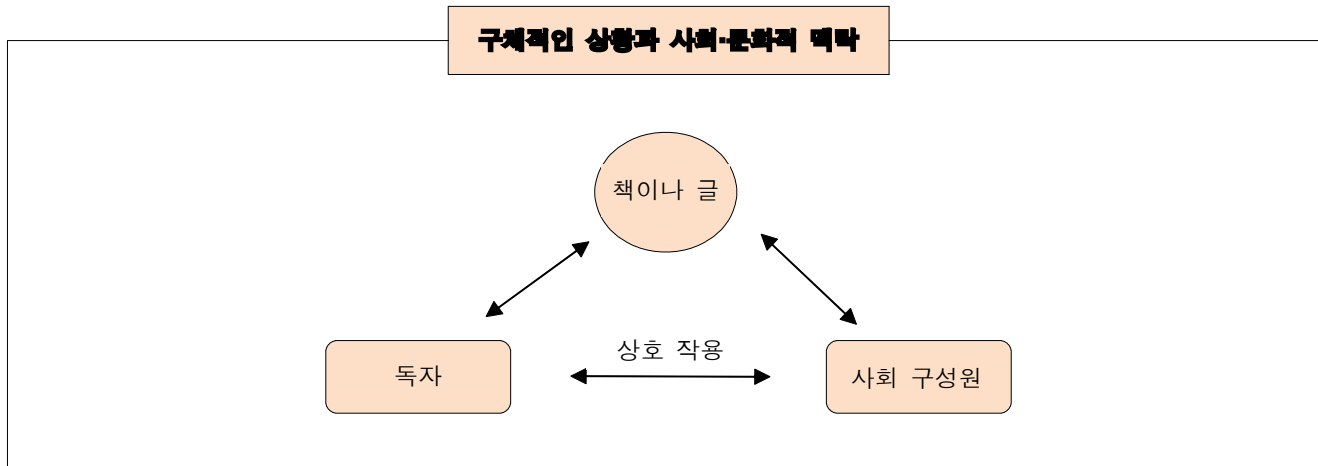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통박이 다. 경국이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쪼르르 달려와서 일

활동 구성

<p>활동 1</p>	<p>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생각 파악하기 • 글에 담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기
<p>활동 2</p>	<p>사회적 문제나 성찰할 만한 삶의 문제를 다룬 책 읽고 의견 공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나 성찰할 만한 삶의 문제 떠올려 보기 • 모둠을 구성하고 친구들과 함께 읽을 책 선정하여 읽기 • 책을 읽고 형성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p>활동 3</p>	<p>함께 읽은 책을 바탕으로 신문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신문에 낼 내용을 고르고 역할 분담하기 • 자신의 역할에 따라 글이나 내용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 구체화하기 • 자신의 역할에 따라 완성한 내용을 모아 지면에 배치하기 • 완성한 신문을 학급 게시판에 전시하여 공유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른 모둠과 서로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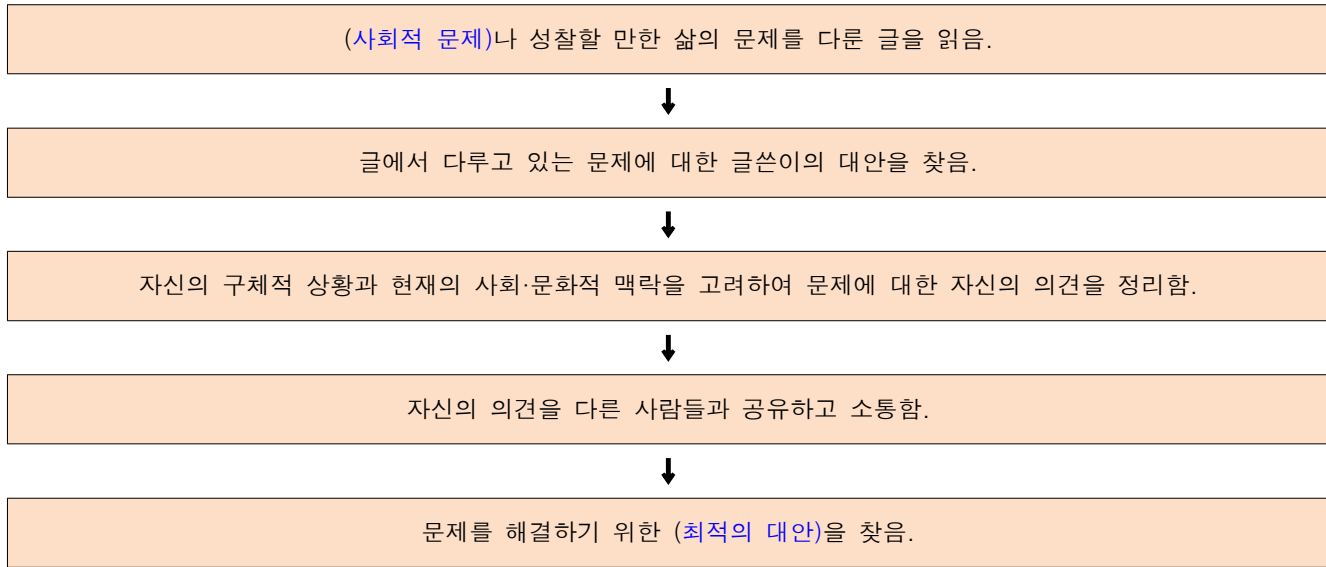
핵심 강의

1.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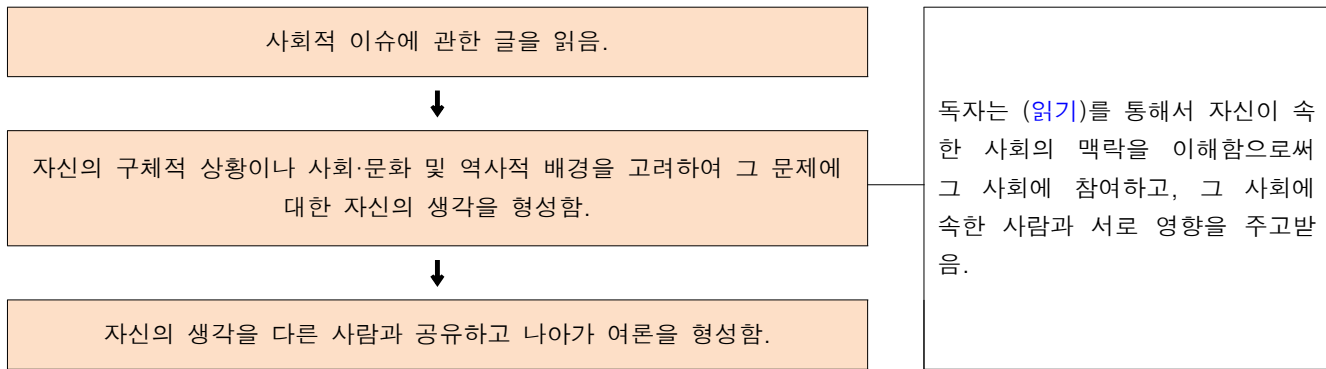


→ 읽기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임.

2.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의 절차



3.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의 의의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악의 저출산 현상 해결책은 공동 육아

2016년 5월까지 국내 출산과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올해 5월에 가장 적은 신생아가 태어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도 신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신생아와 혼인 건수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최저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직접 연결되며,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해 노동력의 약화를 불러온다. 저출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수록 세대 간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의 복지 재정 부담도 점점 증가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나 언론, 시민 단체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점점 일자리가 줄어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노동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간 수명이 늘어나 생산 가능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들의 근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정 인구가 정확하게 계산되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다.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결혼 적령기 층은 ‘아이 덜 낳기 운동’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이다. 이들은 대개 두 명 이하의 형제 속에서 성장하여 다자녀 가정이 매우 낯설므로, 결혼하고 다자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기관과 방송 매체 등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알리는 데 힘썼으면 좋겠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뿐만 아

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 휴직을 편히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생활하는 다세대 공존 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정착하여 대가족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각 지역이나 기업 단위로 공동 육아 시설을 확충하여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비로소 한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 「매경이코노미」(제1870호)

배곧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배곧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윗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다.
- 글쓴이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제시하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무조건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 새로운 육아 문화의 형성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다세대 공존 주택 환경을 조성하여 의무적으로 대가족 공동체를 복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

3. 윗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방안에 대한 실현 방법 두 가지를 찾아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해결 방안	실현 방법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여야 한다.	(1)
	(2)

②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년 5월까지 국내 출산과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올해 5월에 가장 적은 신생아가 태어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도 신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신생아와 혼인 건수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최저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직접 연결되며,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를 축소해 노동력의 약화를 불러온다. 저출산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질수록 세대 간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의 복지 재정 부담도 점점 증가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각급 학교나 언론, 시민 단체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점점 일자리가 줄어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노동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간 수명이 늘어나 생산 가능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들의 근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정 인구가 정확하게 계산되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다.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신생아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육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의 결혼 적령기 층은 ‘아이 덜 낳기 운동’으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이다. 이들은 대개 두 명 이하의 형제 속에서 성장하여 다자녀 가정이 매우 낯설므로, 결혼하고 다자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기관과 방송 매체 등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다자녀 가정의 행복함을 알리는 데 힘썼으면 좋겠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여성은 물론 남성도 육아 휴직을 편히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생활하는 다세대 공존 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정착하여 대가족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각 지역이나 기업 단위로 공동 육아 시설을 확충하여 사회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비로소 한국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작전여자고등학교 (인천)

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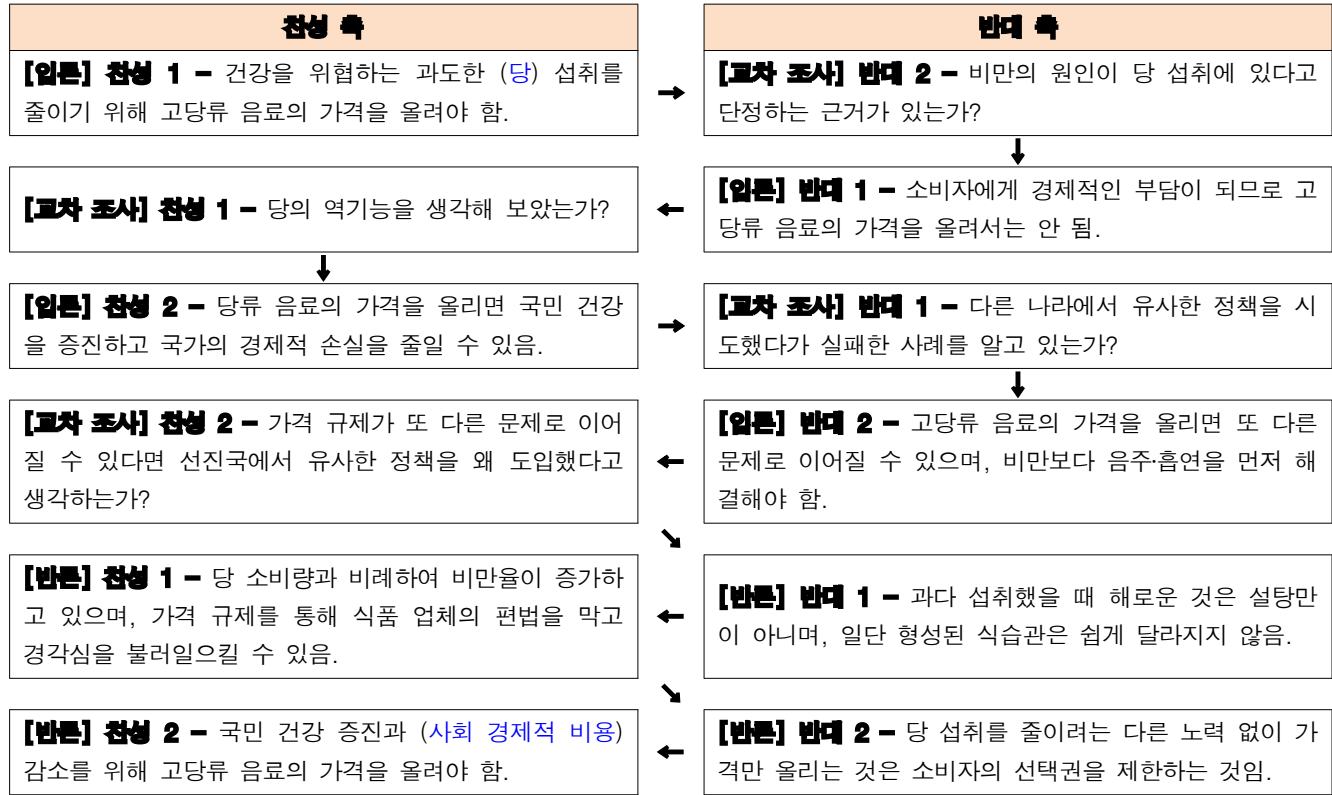
- 개념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인과관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7-(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제제 기관

갈래	토론문(교차 조사식 토론)	성격	객관적, 논리적, 설득적
논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 통계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 사회자와 토론자가 토론 규칙에 따라 발언함. 		

제제 구조도



7-(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핵심 강의

1. 쟁점에 따른 주장과 근거

쟁점 ① 문제의 심각성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찬성 측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장 -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근거 - ① 국내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과도한 당 섭취임. ② 많은 사람들이 당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가공 음료를 즐겨 마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장 -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근거 - ① 당은 인체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며 (권장량)의 섭취는 해롭지 않음. ② 비만을 비롯한 성인병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비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음주와 흡연임.

쟁점 ② 문제 해결의 가능성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찬성 측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장 -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음. 근거 - ① 고당류 음료 가격이 오르면 값이 비싸진 만큼 소비가 줄어들 것임. ②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여 효과를 거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장 -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음. 근거 - ①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음. ②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달라지지 않음.

쟁점 ③ 효과 및 개선 이익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찬성 측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장 -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근거 - ① 당 소비를 억제하여 비만이 줄어들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소함. ② 음료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의 예산으로 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장 -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음. 근거 - ①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음. ② 음료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 확신할 수 없음.

2. 입론의 논증 구성 방법

'찬성 1'의 입론	국내 고도 비만을 추이의 통계 수치 자료와 가공 음료의 당 함유량을 제시하여,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됨을 논증함.
'반대 1'의 입론	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므로, 이를 섭취하는 데에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부당함을 논증함.
'찬성 2'의 입론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표한 고도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의 (통계 수치) 자료를 제시하여 비만율이 감소할 경우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논증함.
'반대 2'의 입론	음주·흡연·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의 통계 수치 자료를 제시하여 음주나 흡연이 비만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논증함.

7-(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10퍼센트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당 함유 가공식품, 특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의 입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1 : 먼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비만율이 줄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이 바로 가공 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가공 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각설탕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3그램짜리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드실 수 있나요? 두 개 혹은 세 개? 혹시 오늘 젓산균 요구르트 150밀리리터를 마셨다면 이미 각설탕 일곱 개를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공 음료에 이렇게나 많은 당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다양한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찬성 측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측 토론자, [㉠]해 주십시오.

반대 2 :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찬성 1 : 당의 해로움을 지적한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에서 2011년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달게 먹는 습관이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6,992명을 대상으로 6~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첨가 당을 하루에 22그램 이상 많이 섭취한 집단은 하루에 8그램 이하로 적게 섭취한 집단보다 비만 위험이 28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원은 첨가 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만성 질환을 유발하므로 덜 달게 먹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2 :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 식품 의약국은 1976년에 이미 설탕의 안정성을 연구했고,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 권장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량일 뿐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5퍼센트 수준인 25그램 이하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500밀리리터 한 병에는 약 50그램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주스는 어떨까요? 주스 한 잔에 들어 있는 당은 평균 1524그램으로, 때에 따라 한 잔의 주스만으로도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자, 다음은 [㉡] 해 주십시오.

물곡고등학교 (경기)

1. 윗글과 같은 말하기 유형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대의 마음이나 행동, 태도를 변화시키는 언어활동이다.
- ㄴ. 절차에 따라 말하기 보다는 즉흥적인 말하기 능력이 요구된다.
- ㄷ.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말하기이다.
- ㄹ.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ㅁ. 반론 시 자기에게 유리한 쟁점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 ㄱ, ㄴ
- ㄱ,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ㄷ, ㄹ, ㅁ

불곡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논제와 성격이 같은 것은?

- 교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만화는 우리 사회에 유익하다.
- 영어 교육은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
- 동물원의 원숭이가 야생의 원숭이보다 더 행복하다.
- 체육 수업 감축은 초등학생들의 체력을 저하시킨다.

불곡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을 참고할 때,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찬성 1은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찬성 1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찬성 1은 소비자가 권장량을 넘어 과도한 당 섭취를 할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반대 2는 비만과 당 섭취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반대 2는 논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해가 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불곡고등학교 (경기)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불곡고등학교 (경기)

5. <자료>는 입론에 대한 설명이다. 찬성1의 입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료>

입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시간이다. 먼저 ㉡논제에 대한 토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청중과 상대방에게 알려줌으로서 청중의 관심을 끈다. 또한 주요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토론의 전 과정에서 자기 팀의 입장을 받쳐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개념 설명에 대한 적절한 예를 들거나,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인 쟁점이 드러나야 하는데 증거 제시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자기 주장이 정당화 되도록 한다.

- ㉠
- ㉡
- ㉢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개요

I. 서론 :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음용 실태

II. 본론1.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과잉 섭취의 원인

1-1. 개인적 원인

- 청소년의 습관적 고카페인 음료 섭취
-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섭취 허용량에 대한 무지
-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의 종류

1-2. 사회적 원인

- 고카페인 음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
- 고카페인 음료의 성분과 과다 섭취 시 부작용에 대한 정보 공개 미흡
- 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하기

본론2.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

2-1. 개인적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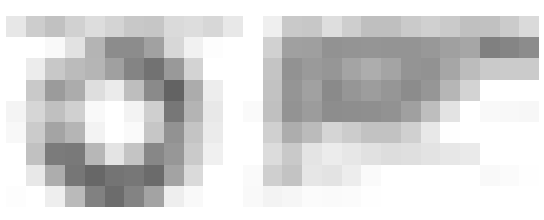
- 습관적인 고카페인 음료 섭취 자제하기
- 일일 카페인 섭취 허용량 지키기

2-2. 사회적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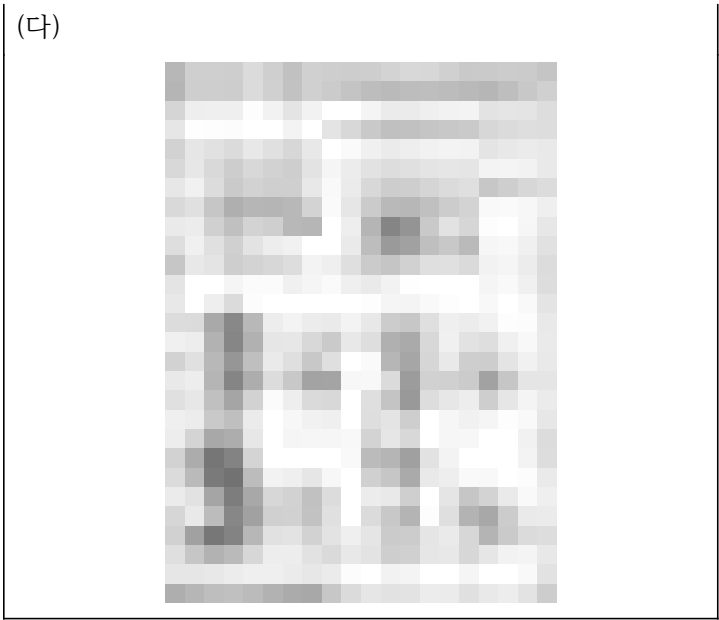
- 고카페인 음료 성분 및 부작용 안내 문구를 음용 용기에 표기하기

III. 결론 :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촉구

(나)



(다)



불곡고등학교 (경기)

6. (가)를 작성할 때 글쓴이가 고려한 쓰기 맥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이자'로 글의 주제를 요약할 수 있다.
-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 서론에서는 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에서 다룬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 평소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고카페인 음료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주된 예상독자로 정하였다.
- 사회적 해결방안 뿐 아니라 아직 나이가 어린 예상독자들도 실천하기 쉬운 개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글의 효용성을 높였다.

불곡고등학교 (경기)

7. (가)의 내용을 상호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민지 : (나)는 서론보다는 2-2에 활용하면 어떨까?
- 서영 : 그럼 2-2에 '사회 제도적 규제방안'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
- 동민 : 1-1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의 종류'에 해당하는 참고자료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 서준 : 1-2의 '학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하기'는 삭제해야 해.
- 하늘 : (다)는 2-1의 '일일 카페인 섭취 허용량 지키기'의 보조 자료로 첨부하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③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이 10퍼센트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의 ①입론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찬성 1 : 먼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실까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공한 이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비만율이 줄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이 바로 가공 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가공 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각설탕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3그램짜리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드실 수 있나요? 두 개 혹은 세 개? 혹시 오늘 젓산균 요구르트 150밀리터를 마셨다면 이미 각설탕 일곱 개를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공 음료에 이렇게나 많은 당이 들어 있는지 모른 채 다양한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가공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 토론자, ②교차 조사해 주십시오.

반대 2 :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찬성 1 : 당의 해로움을 지적한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평가원에서 2011년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달게 먹는 습관이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6,992명을 대상으로 6~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첨가 당을 하루에 22그램 이상 많이 섭취한 집단은 하루에 8그램 이하로 적게 섭취한 집단보다 비만 위험이 28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원은 첨가 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만성 질환을 유발하므로 덜 달게 먹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2 :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 식품 의약국은 1976년에 이미 설탕의 안전성을 연구했고,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 : 권장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량일 뿐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5퍼센트 수준인 25그램 이하

<<전체 정답>>

5-(3) 상황에 따른 문법 요소의 활용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데 → 보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입니다 → 3만원입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ㄴ-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④ 46.① 47.② 48.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② 60.⑤

6-(1) 매체를 통해 보는 세상

1.⑤ 2.④ 3.⑤ 4.⑤ 5.③ 6.㉠머드 광장에 인파가 물리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 ㉡머드 체험시설 앞에서 줄 서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먹을거리 종류가 많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하는 관광객의 인터뷰 동영상 7.⑤ 8.㉠2016년7월15일부터 24일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대천 해수욕장 머드 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19번째 열리는 행사이다. 9.③ 10.④ 11.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2.③ 13.④ 14.④ 15.② 16.⑤ 17.⑤ 18.④ 19.② 20.(1) 보령 머드 축제를 홍보하여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함 (2) ㉠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 보령 머드 축제가 우리 나라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사실을 알린다. 21.① 22.② 23.② 24.축제명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 효과를 의도함. 25.④ 26.④

6-(2) 마지막 땅

1.① 2.③ 3.㉠는 정신적 가치를, ㉡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한다. 4.⑤ 5.③ 6.④ 7.② 8.① 9.⑤ 10.⑤ 11.④ 12.⑤ 13.③ 14.⑤ 15.① 16.① 17.송고미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높은 경지의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이다. 우아미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고 친근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고전적인 기품과 멋을 드러내는 미의식이다. 비장미는 숭고한 이념을 긍정하려는 투쟁에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한의 표출로 형상화되는 미의식이며, 골계미는 구속을 거부하고 삶을 긍정하려는 각성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의식이다. 18.강 노인이 빗독 촉을 받은 후 아내에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강노인이 땅을 팔아 자식들의 빚을 갚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19.⑤ 20.③ 21.⑤ 22.집주인들, 강 노인의 밭이 동네의 격을 떨어뜨리고 집값 상승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3.④ 24.② 25.③ 26.① 27.④ 28.⑤ 29.④ 30.④ 31.① 32.⑤ 33.③ 34. (1) 연탄재, 팔팔 올림픽, 도로 주변 미화 사업 (2) 씨, 것인가 35.① 36.④ 37.③ 38.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는 의미이다. 39.④ 40.③ 41.① 42.② 43.④ 44.② 45.② 46.② 47.⑤ 48.③ 49.④ 50.⑤ 51.① 52.삶의 터전이자 인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다.

6-(3) 책으로 세상 읽기

1.① 2.③ 3.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내 적정 인구의 규모를 오늘날에 맞게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4.② 5.③ 6.④ 7.① 8.③ 9.③ 10.④ 11.② 12.②

7-(1)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1.③ 2.① 3.⑤ 4.② 5.④ 6.② 7.③ 8.① 9.찬성 1은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신뢰할 만한 기